

“집값 하락폭 큰 곳은 세종·대구”



▲ 세종시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세종과 대구 등의 주택 가격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머니S’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이날 발간한 ‘지역경제보고서(2022년 9월)’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주택매매가격은 팬데믹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올 6월부터 하락세로 전환한 뒤 7-8월에는 하락폭이 확대됐다.

최근 주택시장은 지역별로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지역별로는 세종, 대구 등 일부 특·광역시 주택가격 하락폭이 큰 편이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거래량과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가격상승기(2019년 10월~2021년 12월)에 높은 상승세를 보였던 지역과 최근 거래량이 큰 폭 감소한 지역에서 가격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올 1-8월 평균 주택 가격은 세종이 -0.6%, 대구가 -0.5%로 하락폭이 높게 나타난 반면 강원과 제주 각각 0.1%씩 상승했다. 주택 가격 상승기인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세종과 대구가 월평균 각각 1.2%, 0.5%씩 올랐던 반면 강원은 0.3%, 제주는 0.1% 오르는 데 그쳤다.

권준모 한은 지역경제팀 과장은 “가격상승기에 높은 오름세를 보였던 지역과 최근 거래량이 큰 폭 감소한 지역에서 가격하락폭이 크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작년 사망자 수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지난해 한국의 사망자 수가 31만7,680명으로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80세 이상의 사망자가 절반을 차지했으며 암과 심장 질환, 폐렴이 3대 사인이었다.

지난 27일 ‘아시아경제’가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1년 사망 원인 통계 결과’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보면 지난해 총 사망자 수는 31만7,680명으로 전년 대비 1만2,732명(4.2%) 증가했다. 이는 사망 원인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3년 이래 최대다.

성별로 남자 사망자 수는 17만1,967명으로 1년 전보다 6,804명(4.1%) 늘었으며 여성 사망자 수는 14만5,713명으로 5,928명(4.2%) 증가했다. 1일 평균 사망자 수는 870명으로 전년보다 37명 늘었다.



▲ 암 병원 중환자실. 사진=shutterstock

지난해 연령별 사망자 수는 60대가 8.2%로 가장 많이 늘었으며 80세 이상(7%), 20대(2.7%) 등 순이었다. 사망자 수 성비(남/여)는 60대가 2.7배로 가장 격차가 컸다.

전체 사인의 66%를 차지하는 10대 사인은 악성신생물(암),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고의적 자해(자

살),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간 질환, 패혈증, 고혈압성 질환이다.

질병 이외의 외부 요인에 의한 사망이 차지하는 비중은 8.2%로, 전년보다 0.4%포인트 감소했다. 사망 외인 중 10세 이상 전 연령에서 자살이 가장 높았는데 자살 사망자 수는 총 1만3,352명으로 전년 대비 157명(1.2%) 늘었다.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미국 동포 선수단 151명 참가

‘제103회 전국체육대회’가 ‘숫아라 울산’이라는 주제 아래 10월 7일(금)부터 13일(목)까지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3년 만에 정상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전국체육대회 역대 최대 인원인 2만 8,900명의 선수단이 49종목의 경기를 울산종합운동장 등 74개 경기장에서 치르게 된다.

이번 대회에는 18개국에서 1,295명의 해외동포 선수단도 참가한다. 이 가운데 미국은 선수와 임원 151명이 참가해 해외동포 선수단 가운데 가장 많은 선수단을 파견했다. 이어 호주 117명, 인도네시아 113명, 일본 107명, 필리핀 88명 등의 순이다.

울산시는 해외동포선수단이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고국을 방문하는 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국가별 지원전담반을 편성해 입국에서 숙소 이동, 경기장 안내, 출국 때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김해공항에도 안내대를 설치해 입·출국 편의를 돕는다. 또한 공항에서 숙소와 경기장 등 원활한 이동을 위해 전용버스·승합차 등 1,240여대도 동원한다.

10월 11일에는 고국 방문을 환영하고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울산시장 주재 환영만찬도 연다.

개회식은 10월 7일 오후 6시 30분부터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된다. 개회식에서는 10월 3일 강화도 마니산에서 채화되어 총 433km를 달려 온 성화가 점화된다.

폐회식은 10월 13일 오후 6시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통증 전문
치료 병원

오렌지[백] 한방·척추병원

Baek Chiropractic-Acupuncture, Inc

“29년의 임상경험과 한방/척추의 정확한 진단”으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진료해 드립니다.
침, 부항, 한약/보약, 척추교정, 엑스레이, 각종물리치료를 모두 한곳에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서울/세종/대한)
센트럴 헬스, 웰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없음
Scan, Care 1st
Clever Care, Kaiser
Humana, Blue cross
Blue Shield, AARP
일반 메디케어 파트 B

각종 보험

오바마 케어
Health Net,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Aetna, Cigna
United Health Care
HMO- 주치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치료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으니 전화 확인 요망

교통사고

사고 보험 처리
도와드립니다.

무료 상담!
전화주세요!

진료 내용

두통,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저림, 오십견, 안면마비, 우울증,
수면장애, 감기, 갱년기 증상 등

진료 시간 월~금 9am~6pm / 토 9am~12pm
점심시간 12pm~1pm / 목 closed

예약/상담 714.530.7001

9681 Garden Grove Bl., Suite 101
Garden Grove, CA 92844(모란각 식당 옆)



Dr. 백사론
한의원, 척추신경의사
SCU 척추 외대 졸업
South Baylo 한의대 졸업

* 그 외 보험도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보험 없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플랜도 있습니다.)